

청소년의 미래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백민정¹, 강경균^{2*}

¹한국과학기술원, ²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Effects of Youth Future Career Programs

Minjung Baek¹, Kyoung-Kyoon Kang^{2*}

¹KAIST

²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문제를 풀어낼 미래의 대안들을 탐색하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찾고, 그 사회에서 자신이 실현할 미래의 직업을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미래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은 미래이해, 미래참여, 미래의 나, 미래경영으로 총 4 모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미래진로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K대학의 영재교육원의 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미래진로프로그램에는 남학생 62명, 여학생 31명, 중학생 62명, 고등학생 31명이 참여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미래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810$, $p<.001$). 결과적으로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평소에 의문을 갖고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등 생활에 있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달아 현실에 적용하고, 배우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며,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실천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사회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사회 개선력이 높아졌으며, 자신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약점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거나 만드는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Youth Future Career Program for adolescents an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the future efficacy. Through the program, adolescents would predict the future, explore alternative futures to solve future problems, find the shape of the future society they want and desire. In addition, they will discover or create future jobs. In this study, the Youth Future Career Program was developed into four modules: Future Understanding, Future Participation, Future-self, and Future Management. Ninety-three students in K University's Gifted Education Center participated in the Future Career Program (62 males and 31 females, 62 middle school students, and 31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ents responded to 14 questions about the future efficacy of the Youth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8 out of 14 questions ($p<.05$). In particular, the abilities of the participants were improved as follows: to apply newly learned things to society, to evaluate the current problems,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to solve the problem, and to communicate with members of society.

Keywords : Youth Future Career Program, Career Education, Future Efficacy, Future Understanding, Future Participation, Future-self, Future Management

*Corresponding Author : Kyoung-Kyoon Kang(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email: kang@nypi.re.kr

Received February 2, 2021

Accepted March 5, 2021

Revised February 24,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청소년 시기는 진로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며,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진로는 단순히 하나의 직업에 대한 선택이 아닌 자신이 살아가면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앞으로의 자신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자신의 꿈을 맞추어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미래 속의 나의 모습을 예측하고 자신의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는 극적인 변화의 시기로 불확실성의 도래를 의미한다[1]. 이처럼 미래는 불확실하며,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는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2, 3]. 따라서 청소년들이 단순히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이해하며, 자신이 원하고 선호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미래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사회의 성공적인 미래를 경영하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 동안 진로교육은 직업 중심의 진로 교육에서, 자신의 적성과 삶의 가치 중심의 진로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학교 교육에서의 진로 관련 교육 활동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통한 진로탐색 활동 등으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수업 및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방향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미래의 변화를 잘 알고 흐름을 이해하면,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창조할 수 있다[4, 5]. 이러한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요구하는 미래 핵심역량과 삶의 가치 중심의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는 융합되고 연계되어 교육되어야 한다. 미래의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사회변화에 무관심하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면 다른 사람이 제시한 미래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이게 된다. 미래를 알면 알수록 미래를 준비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자신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를 이해하고 예측하여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진로는 미래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선호하는 미래상의 만들며 그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이해하며, 자신이 원하고 선호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사회의 성공적인 미래진로에 도움을 주는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2. 청소년을 위한 미래진로프로그램 개발

미래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 참여 미래연구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청소년 대상 비영리단체인 Foresight Education 재단에서 '미래교육(Foresight Education)'을 통해 트렌드를 분석하고 미래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대안 미래를 도출하고, 선호 미래를 실행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기술교과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기술'교과에서 '청소년 미래예측(Young Foresigh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핀란드 정부(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는 초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Futures Education(미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지향적사고, 미래연구방법, 실천력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뉴질랜드는 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중학생을 대상 사회 교과목으로 '문화의 미래(Cultural Futures)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다[6].

국내에서는 미래 비전 미래 비전 프로세스를 토대로 미래 워크숍을 운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미래효능감을 측정하는 사례가 있다[5]. 또한, 장현진(2019)은 미래워크숍을 활용한 교육대 학생의 미래사회 및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적용 효과를 살펴 보았다[7]. 국내의 미래 참여, 미래 연구, 미래 워크숍은 하와이미래학연구소(Hawaii Research Center for Futures Studies)에서 개발한 미래 비전 프로세스를 토대로 개발하였으며, 계속성장(continued growth), 붕괴(collapse), 보존사회(disciplined society), 변형사회(transformative society)의 4가지 관점으로 미래 사회의 이미지를 예측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보는 참여 활동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을 위한 미래진로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이해하며, 자신이 원하고 선호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사회의 성공적인 미래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은 총 4모듈로서 미래이해, 미래참여, 미래의 나(future-self), 미래경영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진로 관련 전문가 3인에게 모듈의 내용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하여 검토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개발한 모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opics for activa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Module	Contents
Futures Understanding	Students can predict various Futures societies and have a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future.
Futures Participation	Students can make plans to participate and act in the future to create a future society that I want to live in amid change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Future-self	Though changing jobs and jobs in the future, you can choose your future job and set goals for yourself in the futures.
Futures Management	Design the future for each area of life so that I can realize and create the future image I want and prefer, do that I can manage a concrete future by setting a strategy.

첫 모듈인 '미래 이해'는 다양한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미래를 이해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래 이해의 필요성, 미래 예측 역량, 미래를 변화시키는 동인, 미래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계속성장, 붕괴, 보존사회, 변형사회 등을 통해 미래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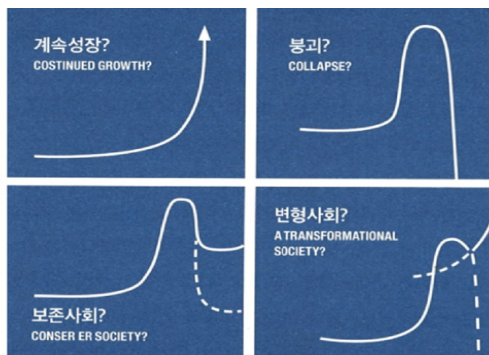


Fig. 1. Futures Understanding(Four Futures)[8]

미래참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 속에서 자신이 원하고 살고 싶은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미래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Fig. 2. Futures Participation(past, present, and future)

구체적으로 10년 전, 현재, 20년 후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사건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재구성하여 미래를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흐름 속에 4가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자신이 4가지 미래모습 중 가장 원하고 선호하는 미래에 대하여 선정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미래상을 그릴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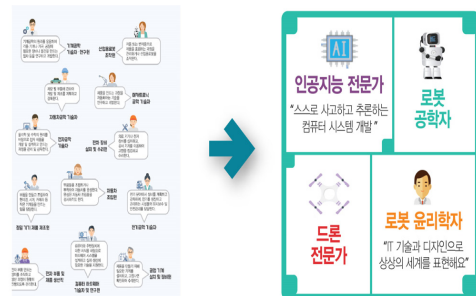


Fig. 3. Future-self(Jobs that change future)

미래의 나(future-self)에서는 현재의 나를 탐색하고 미래에 변화하는 직업과 일자리를 통해 미래직업을 선택하고 미래의 나를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경영은 자신이 원하고 선호하는 미래상을 실현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삶의 영역별로 미래를 설계하고, 전략을 세워 구체적인 미래를 경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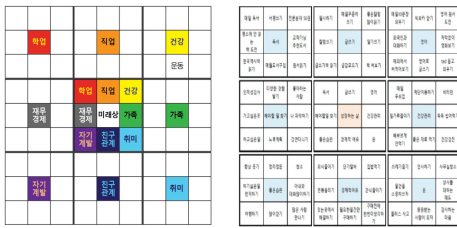


Fig. 4. Futures Management(future Design and Strategy)

3.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 적용 효과

3.1 연구개요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K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의 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실험 설계(The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하였다[9].

실험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미래효능감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총 14문항의 설문지를 프로그램의 전과 후에 응답하도록 하여 미래효능감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하였다. 미래 효능감은 개인은 미래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변화는 일으키고, 또 그 변화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5].

조사도구는 Park & Bahng(2011)이 개발한 미래 효능감을 기초로 박성원, 강경균(2014)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였으며,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연구하는 박사학위 전문가 2인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미래진로 프로그램은 2020년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한 모듈당 3시간씩 총 12시간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미래진로프로그램 전과 후에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미래 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미래진로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를 조사에서 얻은 결과의 차이를 SPSS ver.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p < .05$).

3.2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 적용 효과

청소년의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총 93명이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62명(66.7%), 여학생 31명(33.3%)이며, 중학생 62명(66.7%), 고등학생 31명(33.3%)으로 총 93명이 응답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a Respondent

Division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62	66.7
	Female	31	33.3
Level of School	Middle School	62	66.7
	High School	31	33.3
Total		93	100.0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래진로프로그램 전과 후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Paired Samples t-Test(All)

Q	Post/Pre	M	SD	t	p
Q1	Post1	4.47	.582	1.122	.265
	Pre1	4.40	.610		
Q2	Post2	4.15	.722	-4.27	.671
	Pre2	4.18	.779		
Q3	Post3	3.95	.757	1.154	.251
	Pre3	3.85	.846		
Q4	Post4	4.57	.615	5.738	.000***
	Pre4	4.05	.812		
Q5	Post5	4.55	.651	4.760	.000***
	Pre5	4.10	.956		
Q6	Post6	3.94	.895	2.366	.020*
	Pre6	3.68	1.023		
Q7	Post7	4.59	.556	5.220	.000***
	Pre7	4.13	.769		
Q8	Post8	4.62	.588	3.132	.002**
	Pre8	4.39	.708		
Q9	Post9	4.44	.650	3.140	.002**
	Pre9	4.18	.751		
Q10	Post10	4.60	.678	9.654	.000***
	Pre10	3.76	.826		
Q11	Post11	4.31	.847	2.067	.041*
	Pre11	4.14	.829		
Q12	Post12	4.44	.714	1.044	.299
	Pre12	4.37	.704		
Q13	Post13	4.42	.648	4.420	.000***
	Pre13	4.09	.775		
Q14	Post14	4.25	.816	1.916	.058
	Pre14	4.06	.918		
Total		4.38	.396	7.810	.000***
		4.10	.432		

* $p < .05$, ** $p < .01$, *** $p < .001$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에 대한 설문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미래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810, p<.001$). 구체적으로 미래효능감 14문항 중 9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의문을 갖고 분석하고($t=5.738^{***}$),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며($t=4.760^{***}$),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t=2.366^*$) 등 자신의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달으며 현실에 적용하고($t=5.220^{***}$), 배우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며($t=3.132^{**}$), 배운 것을 현실에서 잘 활용하는 실천력이 향상($t=3.140^{**}$)되었다. 또한, 사회를 개선하는데 참여하는 사회 개선력이 높아졌으며($t=9.654$), 자신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약점을 인정하며($t=2.067^*$),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거나 만드는 의사소통능력이 향상($t=4.420^{***}$)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aired Samples t-Test(by Gender. Male)

Q	D	M	SD	t	p
Q1	Post1	4.48	.565	-.622	.536
	Pre1	4.53	.564		
Q2	Post2	4.21	.750	-.490	.626
	Pre2	4.26	.676		
Q3	Post3	4.02	.757	1.095	.278
	Pre3	3.90	.824		
Q4	Post4	4.55	.592	4.620	.000***
	Pre4	4.06	.807		
Q5	Post5	4.52	.695	4.370	.000***
	Pre5	4.02	.983		
Q6	Post6	3.94	.921	2.070	.043*
	Pre6	3.66	1.007		
Q7	Post7	4.52	.565	3.501	.001**
	Pre7	4.15	.765		
Q8	Post8	4.60	.613	2.203	.031*
	Pre8	4.39	.732		
Q9	Post9	4.37	.659	1.663	.101
	Pre9	4.19	.765		
Q10	Post10	4.58	.691	8.205	.000***
	Pre10	3.69	.879		
Q11	Post11	4.23	.931	1.417	.162
	Pre11	4.08	.874		
Q12	Post12	4.35	.791	.646	.521
	Pre12	4.29	.755		
Q13	Post13	4.37	.659	2.797	.007**
	Pre13	4.10	.804		

Q14	Post14	4.23	.857	.943	.349
	Pre14	4.11	.870		
Total	Post	4.35	.416	5.318	.000***
	Pre	4.10	.421		

* $p<.05$, ** $p<.01$, *** $p<.001$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중 남학생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미래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318, p<.001$). 구체적으로 미래효능감 14문항 중 7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중 남학생들의 경우, 의문을 갖고 분석하고($t=4.620^{***}$),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며($t=4.370^{***}$),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등($t=2.070^*$) 생활에 있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달으며 현실에 적용하고($t=3.501^{**}$), 배우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실천력이 향상($t=2.203^*$)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거나 만드는 의사소통능력이 향상($t=2.797^{**}$)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aired Samples t-Test(by Gender. Female)

Q	D	M	SD	t	p
Q1	Post1	4.45	.624	2.752	.010*
	Pre1	4.13	.619		
Q2	Post2	4.03	.657	0.000	1.000
	Pre2	4.03	.948		
Q3	Post3	3.81	.749	.441	.662
	Pre3	3.74	.893		
Q4	Post4	4.61	.667	3.374	.002**
	Pre4	4.03	.836		
Q5	Post5	4.61	.558	2.079	.046*
	Pre5	4.26	.893		
Q6	Post6	3.94	.854	1.157	.256
	Pre6	3.71	1.071		
Q7	Post7	4.74	.514	4.094	.000***
	Pre7	4.10	.790		
Q8	Post8	4.68	.541	2.334	.026*
	Pre8	4.39	.667		
Q9	Post9	4.58	.620	3.474	.002**
	Pre9	4.16	.735		
Q10	Post10	4.65	.661	5.068	.000***
	Pre10	3.90	.700		
Q11	Post11	4.48	.626	1.563	.129
	Pre11	4.26	.729		
Q12	Post12	4.61	.495	1.139	.264

Q13	Pre12	4.52	.570	4.030	.000***
	Post13	4.52	.626		
	Pre13	4.06	.727		
Q14	Post14	4.29	.739	2.061	.048*
	Pre14	3.97	1.016		
Total	Post	4.43	.353	6.629	.000***
	Pre	4.09	.460		

* $p < .05$, ** $p < .01$, *** $p < .001$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중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미래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629$, $p < .000$). 구체적으로 미래효능감 14문항 중 9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중 여자의 경우,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늘 호기심이 생기고($t=2.752^*$), 의문을 갖고 분석하며($t=3.374^{**}$),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는 등 자신의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이 향상($t=2.079^*$)되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달으며 현실에 적용($t=4.094^{***}$)하고, 배우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며($t=2.334^*$), 배운 것을 현실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천력이 향상($t=3.474^{**}$)되었다. 또한 사회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사회 개선력이 높아졌으며($t=5.068^{***}$),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거나 만들고($t=4.030^{***}$), 혼자일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모임을 통해 배울 때 더 많은 것을 배우는($t=2.031^*$) 등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Paired Samples t-Test(by Lv Sc. Middle Sc)

Q	D	M	SD	t	p
Q1	Post1	4.48	.593	.728	.470
	Pre1	4.42	.615		
Q2	Post2	4.19	.623	-.184	.854
	Pre2	4.21	.771		
Q3	Post3	4.00	.678	.646	.521
	Pre3	3.94	.847		
Q4	Post4	4.58	.615	5.637	.000***
	Pre4	3.97	.809		
Q5	Post5	4.58	.641	4.365	.000***
	Pre5	4.11	.977		
Q6	Post6	4.08	.816	2.813	.007*
	Pre6	3.73	.944		
Q7	Post7	4.60	.557	4.267	.000***
	Pre7	4.13	.799		

Q8	Post8	4.65	.575	2.650	.010*
	Pre8	4.39	.776		
Q9	Post9	4.48	.593	2.032	.047*
	Pre9	4.27	.728		
Q10	Post10	4.66	.571	8.171	.000***
	Pre10	3.79	.792		
Q11	Post11	4.32	.785	.798	.428
	Pre11	4.24	.717		
Q12	Post12	4.45	.717	.798	.428
	Pre12	4.37	.730		
Q13	Post13	4.45	.592	4.781	.000***
	Pre13	4.03	.789		
Q14	Post14	4.26	.767	1.196	.236
	Pre14	4.11	.907		
Total		4.41	.366	6.249	.000***
		4.12	.429		

* $p < .05$, ** $p < .01$, *** $p < .001$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미래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249$, $p < .000$). 구체적으로 미래효능감 14 문항 중 8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중 중학생의 경우, 의문을 갖고 분석하며($t=5.637^{***}$),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고($t=4.365^{***}$),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등($t=2.813^*$) 자신의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달으면 현실에 적용하고($t=4.267^{***}$), 배우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며($t=2.650^*$), 배운 것을 현실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천력이 향상($t=2.032^*$)되었다. 또한 사회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사회 개선력이 높아졌으며($t=8.171^{***}$),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거나 만들 수 있는 등($t=4.781^{***}$)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Paired Samples t-Test(by Lv Sc. High Sc)

Q	D	M	SD	t	Sig
Q1	Post1	4.45	.568	1.000	.325
	Pre1	4.35	.608		
Q2	Post2	4.06	.892	-.441	.662
	Pre2	4.13	.806		
Q3	Post3	3.84	.898	1.044	.305
	Pre3	3.68	.832		
Q4	Post4	4.55	.624	2.061	.048*

Q5	Pre4	4.23	.805	2.208	.035*
	Post5	4.48	.677		
	Pre5	4.06	.929		
Q6	Post6	3.65	.985	.312	.758
	Pre6	3.58	1.177		
Q7	Post7	4.58	.564	2.958	.006**
	Pre7	4.13	.718		
Q8	Post8	4.58	.620	1.647	.110
	Pre8	4.39	.558		
Q9	Post9	4.35	.755	2.617	.014*
	Pre9	4.00	.775		
Q10	Post10	4.48	.851	5.101	.000***
	Pre10	3.71	.902		
Q11	Post11	4.29	.973	2.476	.019*
	Pre11	3.94	.998		
Q12	Post12	4.42	.720	.812	.423
	Pre12	4.35	.661		
Q13	Post13	4.35	.755	1.153	.258
	Pre13	4.19	.749		
Q14	Post14	4.23	.920	1.680	.103
	Pre14	3.97	.948		
Total	Post	4.31	.449	4.727	.000***
	Pre	4.05	.442		

* $p < .05$, ** $p < .01$, *** $p < .001$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미래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727$, $p < .000$). 구체적으로 미래효능감 14문항 중 8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미래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경우, 생활 속에서 의문을 갖고 분석하고($t=2.061^*$),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는 등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t=2.208^*$), 배운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달으며 현실에 적용하고($t=2.958^{**}$), 배운 것을 현실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천력이 향상($t=2.617^*$)되었다. 또한 사회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사회 개선력이 높아졌으며($t=5.101^{***}$), 자신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약점을 인정($t=2.476^*$)하는 등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이해하며, 자신이 원하고 선호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직접 자신의 미래 진로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자

신과 사회의 성공적인 미래 진로에 도움을 주는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래워크숍, 미래 연구, 미래 참여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은 미래이해, 미래참여, 미래의 나(future-self), 미래경영으로 총 4 모듈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그 동안의 미래연구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청소년의 진로 관점에서 미래연구를 접목하였으며, 선호하는 미래상을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의 진로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미래 사회를 다양한 관점으로 예측하고, 과거-현재-미래의 맥락 속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이해하며,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바라고 선호하는 미래의 모습을 창조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미래를 그려보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과거의 '직업'의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탐색해보고 현재 자신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미래의 사회와 자신을 위한 경영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직업'중심이 아닌,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읽고 자신이 원하고 선호하는 미래상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찾고 현재의 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미래진로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전체적으로 미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미래진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있어 미래에 잘 적응하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 사회상을 생각해보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진로 활동에 있어 미래학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 사회의 혁신적인 측면을 반영한 직업을 제시하고, 선택하는 활동보다는 미래 사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미래학 기반의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미래진로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한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미래진로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미래진로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역량을 위한 지표 개발은 청소년의 교육 지표에 있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와 연계하여 미래효능감을 평가지표로 청소년의 미래 진로에 대한 역량을 측정하였지만, 구체적인 미래역량을 기초로 타당성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하여 교육 목표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진로교육에 있어 학교 안과 밖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래진로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활동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진로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Kwang-Ho Lee, "Let your child have verb dreams", Borabitchow, 2020.
- [2] Coffman, B. "Weak Signal Research: Part III Sampling", Uncertainty and Phase Shifts in Weak Signal Evolution, 1997.
- [3] WRR, "Exploring Futures for Policymaking" Scientific Council For Government Policy, Scientific Council for Government Policy, the Netherlands, 2011.
- [4] Park & Bahng, "Creating a Learning Society through Practices of Futures Studies", *The 3rd Global Higher Education Forum*, Penang, Malaysia, pp12~15, December, 2011.
- [5] Seong-Won Park, Kyoung-Kyoon Kang, "Research on Future Jobs of Youth that has been Viewed by Futures Workshop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27, No.3, pp.225-243, 2014.
- [6] Seong-Won Park., etc. "Youth Participation Future Research: Examples and Implications", *Science & Technology Policy*, Vol.15, 2014, ISSN 2383-6458.
- [7] Hyun-jin J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Future Societies and Career Explor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of Education Using Futures Workshop",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32, No.1, pp.43-66, 2019.
DOI : <http://dx.doi.org/10.24062/kpae.2019.32.1.43>
- [8] Seong-Won Park, "Future study". Geulhangari, pp. 70, 2019.
- [9] Frankel, J & Walle, N. "How to Design and Evaluate Research in Education", McGrawhil, 2008.

백 민 정(MinJung Bae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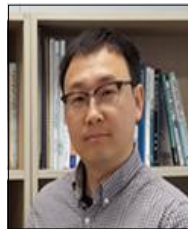
- 2010년 8월 : 단국대학교 경영정보전공 (경영학 박사)
- 2009년 11월 ~ 현재 : KAIST과 학영재교육연구원 연구조교수
- 2009년 11월 ~ 현재 : KAIST IP 영재기업인교육원 사업책임자

<관심분야>

기업가정신교육, 진로·직업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강 경 균(Kyoung-Kyoon Kang)

[정회원]



- 2006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전공 (교육학석사)
- 2011년 8월 : 충남대학교 기술교육전공 (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경영전공 (경영학 석사)
- 2014년 12월 ~ 현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진로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중등직업교육, 발명교육